

페미니즘 서적 내용·형식·필진에 변화 바람

‘여성문제라면 할 말 있다...’, ‘보통여자’들의 글쓰기 늘어, 페미니즘 대중화의 상징

페미니즘 서적의 내용과 형식이 바뀌고 있다.

80년대 여성학 서적은 예외 없이 딱딱한 이론서나 선언서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필진 또한 마찬가지로 대개 학계에 몸담고 있는 몇몇 선구적인 학자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보통 여성’에 의해 쓰여진 책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여성학은 가장 진지한 ‘학문’의 하나였으며, 일부 ‘개인 여성’, 대학교육 또는 그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들에게나 학습 가능한 ‘선진적인 이념’ 중 하나였다.

그러던 것이 이제 와서는 페미니즘의 상업화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급격하게 대중속을 파고들기 시작하고 있다. 당연히 필진도 바뀌었다. 2, 30대의 젊은 여성에서부터 40대 중년 주부들에 이르기까지, 박사 학위는 없지만 여성문제라면 나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는 사람들이 속속 자신의 이야기를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1979년, 여성학 서적 본격 소개돼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여성학 서적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79년. 이대 출판부의 <이화 문고> 2집인 <여성학>과 역시 당시 이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사회학자 이효재 씨의 편역서 <여성해방의 이론과 실제>가 발간되면서부터다. 이 두권의 책은 지금도 우리나라 여성학의 고전이라 일컬어지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후 약 5년간은 외국의 여성학 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을 실천적 측면이 아닌 학문적 측면에서 우리의 현실과 접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책들이 주로 발간된 시기였다. <이화문고>가 내놓은 일련의 책들, <여성사회철학>, <여성심리학>, <현대 여성 해방 사상>, <여성의 예측>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여성의 지위>, <세계 여성운동> 1, 2권(이상 도서출판 동녘)과 <성의 변증법>,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이상 도서출판 풀빛) 등 주로 외국 학자들의 책을 번역하거나 여러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나름의 방식으로 한데 묶은 편역서 형태의 책들이 가물에 콩나듯 등장했다. 이들은 지금도 여성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을 끌며 몇 안되는 여성학 기본 이론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80년대 중반, 초기 여성학 서적을 통해 여성의 예측과 남녀평등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가장 상업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하는 대형 출판사들이 여성학 전담 편집진을 구성해 책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여성학서적 전문 출판사까지 생겨났다. 또한 이를 서술하는 필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많은 여성들이 서서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체험을 여성학의 잣대를 통해 해석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된 것이다.

각성을 한 여성들이 대거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색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실적인 조언과 대안이 필요했다. 책에서는 너무 명확하고 기본적인 조건이었었던 것들이 사회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다. 머리는 저 멀리 남녀평등의 유토피아를 갈망하는데 상황은 싸울 기력조차 빼앗길 만큼 힘겹기만 했다. 나 하나가 아닌 주변의 많은 여성들에게도 권하고 함께 읽을 만한 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당시 나의 가장 큰 바람이었다.”

학문과 이론의 영역에서 생활의 지평으로 확대

현재 모 은행 노조 여성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숙 씨(29)의 말이다. 바로 이시기에 발간돼 이러한 독자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준 것이 <암탉이 울면-새벽을 여는 여성을 위하여> (도서출판 동녘)과 <아리랑 고개의 여인> (한울 출판사), <사이공의 흰옷> (도서출판 친구), <신데렐라 콤플렉스>와 같은 책들이었다.

한때 신입 여대생들의 필독서로 일컬어지기도 했던 <암탉이 울면>은 노동현장에 투신한 한 여성(최순덕)이 나름대로 공부한 이론들과 생활 속의 여러현상을 연관지어 일반 여성들이 쉽게 여성학의 기본적인 관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책이다. <아리랑

고개의 여인>은 한 항일여성운동가의 일대기를 그 남편의 입을 통해 풀어놓은 책이고 <사이공의 흰 옷> 역시 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에서 활동한 한 여대생의 삶을 기록한 글이다. 이처럼 페미니즘을 학문과 이론의 영역에서 생활의 지평으로 확대시키는 데는 85년에 첫권을 발간한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의 적지 않은 기여가 있었다.

85년의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를 시작으로 현재 9권까지 발간된 <또 하나의 문화> 책은 현실 생활 속에 숨어있는 여러가지 복잡 다기한 여성문제를 학자 뿐만이 아닌 다수의 평범한 여성의 고백적 글쓰기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시도했다. 이러한 형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또 하나의 문화>, 평범한 여성의 글쓰기 작업 시도

‘아무 것도 아닌 여자의 치지리 궁상이나 만지 켜 가정사’도 글 쓸 거리가 된다는 사실은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다가왔다. 딱딱한 이론서 속에 간혀있던 많은 문제들과 생각의 거리들이 머리속 지적 충족의 영역에서 생활 속의 이야기들로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각 대학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학습의 열기는 이제 젊은 지식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사회와 가정의 영역을 향해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다. 여성문제와 남녀평등의 이념을 바로 자기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 적용시키는 여성의 수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90년을 전후해 <또 하나의 문화> 제7, 8권으로 나온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새로 쓰는 성 이야기>는 페미니즘의 시각이 바야흐로 가장 민감하고 비이론적인(?) 영역에까지 ‘침투’하였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대형 출판사, 여성학 전담 편집진 구성

이 두권의 책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 어떤 여성학 책보다 광범위한 관심과 토론의 표적이 되는 영광을 누렸다. 페미니즘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은 이제 특수한 몇몇 ‘튀는 여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이 시대 남녀 모두의 공통관심사가 된 것이다.

이러한 독자들의 시각 변화와 페미니즘의 대중화 흐름을 읽어낸 몇몇 발빠른 출판사들이 여성학을 대중적으로 풀어쓴 책들을 속속 발간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회과학 출판사들의 이론적 사망감이나 ‘여성학 책을 만들면 기본은 간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기획, 출간되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가장 상업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하는 대형 출판사들이 여성학 전담 편집진을 구성해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여성사>

라는 여성학서적 전문 출판사까지 생겨났다.

이들 90년대 서적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장르의 다양화다. 여성학을 주제로 한 콩트집,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와 같은 쉽게 풀어쓴 여성학 이론서, 성과 관련된 일련의 책들, 남녀 모두를 독자로 한 연애와 사랑에 대한 조언서, <프로의 남편은 차별받지 않는다>와 같은 체험서 등.

필진의 확산, 출판사의 심각한 ‘필자난’

당연히 이를 서술하는 필진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주로 80년대의 대학생들을 통해 여성학에 눈을 뜨고 사회와 가정에서 그 이론을 체험적으로 고민하고 풀어낸 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필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제 ‘거대한 진리’라는 것에 두었던 비중은 줄어들고 삶의 현장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작은 진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 증거다. 과거, 자신의 사적 영역이 말에서 글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많은 여성들이 서서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체험을 여성학의 잣대를 통해 해석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각 출판사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필자난에 허덕이고 있다.

가장 ‘확실한’ 필자였던 연구

자들의 관심사와 독자들의 관심사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을 피해 그야말로 ‘보통 여성’들을 필자로 선택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해 보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도서출판 동녘>의 김지숙(32) 씨는 “경험의 깊이가 있거나 이야기를 통합하는 취재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대개는 단편적인 부분들만을 소화할 수 있을 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이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 이론과 독자들의 현실적 관심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만한 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성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나 일반 독자에게서나 양쪽 모두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기초공사도 없이 벽돌 쌓는 꼴’ 비판도

이와같은 어려움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여성학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것에 비해 아직 튼튼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학문적 위상도 확실히 잡혀 있지 않을 뿐더러 연구 성과도 아직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여성학의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책조차 아직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출판가들이 너무 성급하게 대중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와 버린 결과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여성적 글쓰기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을 하는 이들은 해외의 연구 성과들이나 작품을 원서의 형태 이외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기초공사도 채 끝나지 않은 집터에 계획 없이 벽돌만 쌓아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혹독한 평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표현의 광장을 향해 나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 페미니즘의 진보와 그 발전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 공식적이고 남성적인 언어에 짓눌려 비공식적이고 가치없는 낯두리나 투정의 범주에 갇혀 있던 여성의 언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여성학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학은 실천과 변혁을 위한 학문이며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것은 그 어떤 이론가도 운동가도 아닌 ‘보통여자’, 바로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나라 기자>